

四象人の 熱證에 對한 考察

崔容準* · 金敬堯*

I. 序 論

古代로부터 熱이란 疾病에 걸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症狀 中의 하나로 잘 알려져 왔다. 현대 의학에서도 발열의 상태에 따라 疾病의 有無와 臨床적으로 회복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韓醫學에서는 發熱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 크게 內傷發熱과 外感發熱로 구분하고 治療를 하여왔다. 즉 外感發熱의 경우에 있어서는 傷寒論을 중심으로 中風 · 傷寒 · 濕瀉 · 熱病 · 溫病 等の 病因이 인체에 침입하면 正氣와 邪氣의 시간적 반응에 따라 發熱의 樣態가 구분되며, 그 治療에 있어서도 汗 · 吐 · 下 三法을 治法으로 삼았다. 內傷發熱은 飲食 · 勞倦 · 七情損傷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發熱의 樣態로서, 이것은 주로 인체내의 陰陽의 不調에 의한 平衡상태가 깨어지게 되어 발생하는 일종의 虛證發熱의 상태이다. 이러한 虛證을 유발시키는 원인에 따라서, 陽虛發熱 · 陰虛發熱 · 氣虛發熱 · 血虛發熱 등으로 구분되어 주로 補虛의 治法을 사용하게 된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發熱의 樣相은 주로 동일한 인간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疾病이 진행되는 시간에 따라 또는 발병의 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發熱의 양태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治療와 研究를 하여왔다.

그러나 四象醫學에서는 各 體質에 따른 臟腑의 虛

實이 존재하며, 이러한 臟腑의 虛實에 따라서 保命之主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保命之主는 各 體質에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는 요체가 되는 것이다. 즉 少陰人은 脾陽의 不足으로 인한 陽暖之氣, 少陽人은 腎陰의 不足으로 인한 陰清之氣, 太陰人은 肺의 氣液을 呼散하는 능력의 不足에 의한 呼散之氣, 太陽人은 肝의 吸聚하는 能力不足에 의한 吸聚之氣가 保命之主로 존재하여, 동일한 邪氣가 人體 內에 침입하더라도 各 體質別로 人體의 發熱 樣相이 體質別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論文에서는 體質別로 熱에 대한 反應과 邪氣가 침입하게 됨에 따라 各 體質은 어떠한 發熱의 상태를 나타내는가에 관하여 『東醫壽世保元』의 표현을 통하여 論해 보고자 한다.

II. 研究 方法

1. 東醫壽世保元에서의 熱證을 論하기 前에, 傷寒論에서 사용되는 熱證의 개념을 먼저 기술하였다.
2. 東醫壽世保元에서의 熱證 引用文과 解釋은 全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에서 출판한 「四象醫學」을 原文을 引用하였으며, 各主에 번호는 「四象醫學」과 동일하게 표시하였다.
3. 本論의 敘述方式은 原文을 먼저 敘述하고 후반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부에 해당병리를 설명하였다.

朴炅南	傷寒發熱에 關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論文	1992 年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敎室	四象醫學	集文堂	1997 年
崔義權, 金敬堯	四象醫學에서의 陰陽寒熱表裏虛 實 病理의 變用	四象醫學會誌, 9(1):25-121	

Ⅲ. 本論 및 考察

既存의 韓醫學에서 發熱은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 서 外感發熱과 內傷發熱로 구분하고, 熱證이란 인체 가 陽邪의 침습을 받아서 “陽勝則熱”하게 된 경우와 인체의 陰液이 부족하여 “陰虛則熱”하게 되는 두 가 지 경우가 있다. 前者의 熱證을 實熱이라 한다면 後 者의 熱證을 虛熱이라 할 수 있다. 實熱인 경우에는 面紅·日赤·壯熱·煩躁·口渴·喜冷飲·大便秘結· 小便短赤·舌質紅絳·舌苔黃·脈數 或洪大而數 등 熱象이 현저히 나타나고, 虛熱인 경우에는 五心煩 熱·骨蒸潮熱·咽燥口乾·舌光紅·脈細數 등의 증상 이 나타난다. 實熱인 경우는 “熱者寒之”의 원칙에 따 라 淸法을 위주로 하며, 淸熱瀉火, 淸熱解毒하는 약 물을 사용한다. 虛熱의 경우는 養陰을 위주로 하되 淸熱을 다음으로 고려한다¹⁾.

이에 대해 四象醫學에서 熱證이 發하는 원인은 外 部和 인체와의 관계에 있어 반응하는 正氣가 熱證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少陰人의 경우 正氣인 陽暖之氣가 病邪에 의하여 소실되어감에 따라 發熱 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少陰人은 陰化되어 가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열상태에 해당이 되므로, 기본적으로는 眞寒假熱의 상태로 볼 수 있으며, 少

陽人의 경우 陰淸之氣인 保命之主의 소실이 發熱의 상태를 나타내게 되므로, 少陽人의 기본병리는 陽化 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熱證에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實熱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太陰人의 경 우에는 寒厥과 肝燥熱의 상태에서 발열의 양상이 주 로 나타나게 되므로 呼散之氣와 吸聚之氣의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 發熱에 대한 치료의 원칙이 되는 것 이다. 따라서 保命之主에 따른 發熱의 상태를, 東醫 壽世保元에서 舉論이 되는 열의 표현을 통하여 각 체질별 熱의 종류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少陰人에 있어서는 熱·熱氣·身熱·潮熱· 惡熱·煩熱이 있으며, 少陽人에 있어서는 熱·熱 氣·往來寒熱·身熱·煩熱·寒多熱少·熱多寒少 등 이 있다. 太陰人에 있어서는 體熱·壯熱·燥熱·厥 多熱少·厥少熱多 등이 있다. 太陽人은 熱證에 대한 표현이 없다.

이러한 熱證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熱證의 徵候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少陰人 과 少陽人에 있어 熱·熱氣가 있다.

〈표 1〉 東醫壽世保元에서의 熱證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
熱證의 徵候		熱·熱氣	熱·熱氣
熱의 屬性	體熱·壯熱 ·燥熱	往來寒熱· 身熱	身熱·潮熱· 煩熱·惡熱
熱의 多少	厥少熱多	寒多熱少· 熱多寒少	厥多熱少·

둘째 發熱의 緩急과 類型에 따른 熱의 屬性에 의 한 구분으로 少陰人의 身熱·潮熱·煩熱·惡熱이 있게되며, 少陽人에 있어서는 往來寒熱·身熱이 있

1) 崔義權, 金敬堯: 四象醫學에서의 陰陽 寒熱 表裏 虛實 病理의 變用, 四象醫學會誌, 9(1):54

고, 太陰人에 있어서는 體熱·壯熱·燥熱이 있다.

셋째 熱의 多少에 따라서는 少陽人에 있어 寒多熱少·熱多寒少가 있고, 太陰人에 있어서는 厥多熱少·厥少熱多가 있다.

1. 熱候를 나타내는 표현

1) 熱

傷寒論에서 말하는 熱은 發病原因의 하나로서 주로 熱邪를 말하게 된다. 즉 熱邪가 入裏함으로 인해서, 胸痞 등의 증상이 있거나, 陽明胃家實證 등이 생기며, 熱邪가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熱로 化하게 된다.

少陰人에 있어 熱의 표현을 살펴보면 '張仲景이 말한 太陽傷風證에 熱이 나고, 惡寒이 있다고 한 것은 少陰人의 腎에 熱을 받아 밖에 熱이 나는 症狀이니²⁾'라고 하였으며, '만약 外熱이 裏冷을 에워싸고 있으면, 內에 毒氣가 거둬 맺혀서³⁾'라고 하는 표현에서처럼 邪氣 개념으로서의 熱을 나타낸다. 그리고 '太陽病에 땀이 나는 것은 熱氣가 寒氣를 몰아내는 땀이다⁴⁾'라고 하는 것에서는 正氣로서의 熱을 표현하였다.

少陽人에 있어서는 '少陽人의 腎局의 陰氣가 熱邪에 빠지는 바가 되고, 脾局의 陰氣는 熱邪에 막히는 바가 되어⁵⁾'와 '少陽人은 원래 더운 기운이 많기 때

문에 배가 아픈 것도 역시 차서 아픈 것이 아니라 더워서 아픈 것이다⁶⁾' 또한 '少陽人 病은 火와 熱이 그 證이 되기 때문에 변동이 매우 빨라서⁷⁾'와 '少陽人이 胃에 熱을 받게되면, 便秘가 생긴다.⁸⁾'에서처럼 少陽人에 있어서는 發病 原因에 있어 寒과 더불어 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少陰人에서처럼 熱에 관한 표현이 직접 正氣를 의미하는 표현은 없었다. 이는 少陽人은 본래 脾大腎小하여 胃腸의 熱氣는 왕성하고, 大腸의 寒氣가 부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항상 熱이 지나치고 寒이 부족하게 되어 병이 오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신 清陽, 裏陽으로 正氣로서의 熱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少陽人의 과다한 熱를 말하는 힘이라는 표현이다.

太陰人에 있어서 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胃脘이 寒邪를 받게되어 생기는 熱證이다. 陽毒과 癰病의 병증에 있어 素病寒者는 寒證으로 나타나며, 素病熱者는 熱證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素病熱者의 경우는 裏病으로 간주되어 裏病藥으로 치료하고, 素病寒者는 表證藥으로 치료가 된다. 둘째 太陰人의 面色이 靑白者는 燥證이 없고, 面色이 黃赤黑者는 燥證이 있게 되는데, 燥證이 있게 되는 面色黃赤黑者의 燥熱證이 裏病에서의 太陰人의 熱이다.

2) 6-5.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傷風 發熱惡寒者 卽 少陰人 腎受熱表熱病也

3) 6-11. 若 外熱包裡冷而 毒氣重結於內 或 將有養虎遺患之弊則

4) 8-2. 太陽病汗出 熱氣卻寒氣之汗出也 陽明病汗出 寒氣犯熱氣之汗出也

5) 9-8. 少陽人腎局陰氣爲熱邪所陷 而脾局陰氣爲熱邪所壅不能下降 連接於腎局而 應聚腎間膠固囚滯之病也 此證 嘔者外寒包裏熱而挾疾上逆也 寒熱往來者 脾局陰氣欲降未降而或降 故寒熱或往或來也.

6) 9-31. 古醫有言 頭無冷痛腹無熱痛 此言非也何謂然耶? 少陰人元來冷勝則其頭痛 亦自非熱痛而卽冷痛也 少陽人元來熱勝則其腹痛亦自非冷痛而卽熱痛也

7) 9-45. 少陽人病以火熱爲證故變動甚速

8) 10-9. 少陽人胃受熱則大便燥也

2) 熱證

熱證은 病證의 하나로서 질병의 한 개념이다. 傷寒論에서 나타나는 熱證은 寒邪가 內部로 들어가서 열화(熱化)하는 症狀이다.

3) 熱氣

傷寒論에서 熱氣란 熱邪의 강한 氣勢를 나타내는 것이다.

少陰人에 있어 '太陽病에 있어 땀이 나는 것은 熱氣가 寒邪를 물리치는 땀이고, 陽明病에서 땀이 나는 것은 寒邪가 熱氣를 침범하는 땀이다.'⁹⁾에서 少陰人에 있어 熱氣는 傷寒論이 熱邪의 개념인 것과는 다르게 少陰人의 保命之主의 표현이다. 이외에도 少陰人의 保命之主의 표현으로 溫氣가 있는데 李濟馬는 太陽病과 陽明病의 病程을 熱氣와 寒氣의 투쟁으로 표현하고, 太陰證과 少陰證의 病程은 溫氣와 冷氣의 투쟁과정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熱氣, 溫氣, 陽氣는 少陰人의 保命之主로서 표현이 되며, 寒氣, 冷氣, 陰氣는 邪氣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少陽人에 있어서는 胃受熱裏熱病論에서 朱肱의 引用文中에서 '대개 熱氣가 심하면 장차 厥證이 일어난데, 만약 약간 厥冷하고 도리어 熱이 나는 것은 熱이 심하기 때문이다.'¹⁰⁾에서 熱厥의 원인은 少陽人이 胃에 熱氣가 왕성한 것이 더욱 심화되어 생기는 것으로 熱氣란 邪氣의 강한 氣勢라 하였다. 이러한 熱氣가 심해지면 나타나는 症狀으로는 飮水, 장揚手足搏足, 煩燥不得眠, 大便秘, 小便赤 등의 증상

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太陰人과 太陽人에 있어서 熱氣의 引用文은 없다.

2. 發熱의 屬性에 따라

1) 身熱

傷寒論에서 身熱이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다. 첫째 陽明病의 外證의 하나로서 陽明熱이 盛하여 나타나는 경우, 둘째 傷寒에 下하여 邪熱이 內陷하게 되면, 胸膈에 邪熱이 鬱滯되게 되어 身熱이 있게되며, 셋째 三陽이 合病이 되어 身熱이 생기는 것 등이 있다.

少陰人에 있어 身熱은 '腎陽困熱 大腸怕寒'처럼 下焦에 熱邪가 있게되면, 表證의 증상으로 身熱煩惱가 있게 되며¹¹⁾, 胃家實과 脾約證의 증상에서 鬱狂證은 모두 身熱이 있고, 땀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亡陽證은 모두 身熱이 있고 땀이 저절로 많이 흘러 나오는 것이다.¹²⁾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陽明外證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少陽人에 있어서 身熱은 少陽人의 亡陰證에 나타나는 症狀으로 身熱頭痛泄瀉와 身熱腹痛泄瀉가 있는데, 身熱頭痛泄瀉가 한 두 차례 泄瀉가 있게되면 亡陰證이 온다고 하였다. 朱肱의 陽厥 引用文中에서 '陽厥이란 처음 病을 얻을 때 반드시 몸에 熱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걸으로는 陽證이 있다가, 4-5일에 이르러서야…… 熱이 나는 것은 熱이 심한 때문이다.'¹³⁾라고 하였는데 朱肱의 陽厥證 치료에 있어

9) 8-2. 太陽病汗出熱氣卻寒氣之汗出也 陽明病汗出寒氣犯熱氣之汗出也

10) 10-7. 朱肱曰 陽厥者初得病必身熱頭痛外有陽證至四五日方發厥 厥至半日却身熱 蓋熱氣深方能發厥

11) 6-11. 少陰人脾局陽氣爲寒邪所掩抑而腎局陽氣爲邪所拒不能直升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 … 太陽病表證因在者身熱煩惱而惡寒之證問有之太陽病外證除者 身熱煩惱而惡寒之證都無之也 … 太陽病外證未除則陽氣其力雖有鬱抑猶能振寒而與寒邪相爭於表也若外證盡除則陽氣其力不能振寒而遂爲窮困縮伏之勢也…

12) 6-35. 蓋 鬱狂證 都是身熱自汗不出也 亡陽證都是身熱自汗出也

李濟馬는 便秘가 있게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았다. 이는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에서 亡陰證과 朱肱의 陽厥證이 모두 便秘의 有無에 치료를 淸한 點으로 보아 身熱은 少陽人에 있어서 便秘의 증상과 더불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수 있다.

太陰人과 太陽人에서는 身熱과 關계된 表現은 없다.

2) 潮熱

潮熱이란 陽明腑 實證에서 燥熱이 內結함으로써 潮熱이 있게되는 경우와 水熱結胸하여, 潮熱이 陽明에 影響을 米치게되어 日晡에 약간 潮熱이 있는 것 그리고 少陽과 陽明이 同病하였는데 少陽이 不和하고 燥熱이 內結하여 나타나는 潮熱이 있다.

少陰人에 있어서는 '張仲景도 大黃大承氣湯을 써서 少陰人의 太陽病이 陽明病으로 轉속된 病症을 치료하는 것이다. …… 胃中이 燥煩實하여 大便을 5-6 日 보지 못하고 매일 해질 무렵이면 潮熱을 발하며 … 少陰人의 太陽病이 陽明病으로 轉속하여 大便을 5-6일 보지 못하고 해질 무렵이면 潮熱이 나는 경우 에는 쓸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쓸 수가 없다…14)' 또한 '胃家實病에는 처음 시작할 때에는 땀이 나지 않고 惡寒症도 없다. 다만 熱이 심하다가 거의 죽게 되면 끈끈하게 땀이 약간 나고 熱이 潮水처럼 올랐

다 내렸다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되는 것은 寒邪를 表로 떨쳐 버리는 힘이 아주 고갈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胃氣가 아주 말라버린 症候인 것이다.15)'라고 하였다. 이는 傷寒論에서 보면 陽明腑 實證에 潮熱이 內結하여 大便이 나오지 않으면 나타나는 潮熱의 상태로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暖之熱氣가 고갈이 되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았다.

少陽人과 太陰人에 있어서는 潮熱의 상태를 볼 수 는 없었다.

3) 煩熱

傷寒論에서 煩熱이란 發熱이 있으면서 胸中이 답답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邪熱이 內陷되어 火가 胸中에 鬱滯되면 煩熱하는 것과, 邪氣가 太陽에 鬱滯되어 陽熱이 亢盛함으로써 煩熱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煩熱이란 心煩하면서 몸에 熱이 있는 상태 이다.

少陰人의 煩熱은 '亡陽이라는 것은 陽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亡陽이라 하고, … 陰이 盛하여 위에서 陽과 다투면 陽이 陰에게 억눌리게 되어 胸膈에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大腸에 빠져 밖으로 膀胱에 도망하니 등의 길에 煩熱하면서 땀이 난다. 煩熱하면서 땀이 나는 것은

13) 10-7. 朱肱曰 陽厥者初得病必身熱頭痛 外有陽證至四五日方發厥 厥至半日 却身 熱蓋熱氣深方能發厥 若微厥 却發熱者熱甚故也 其脈雖伏按之滑者爲裏熱. … 大便秘小便赤外證多昏澁用白虎湯

14) 6-20. 論曰 秦漢時 醫方治法 大便秘燥者 有大黃治法 無巴豆治法 故 張仲景 亦用大黃大承氣湯 治少陰人 太陽病轉屬陽明病 其人 澹然微汗出 胃中燥煩實 不大便 五六日至十餘日 日晡所發熱 不惡寒 狂言 如見鬼狀之時而 用之則 神效 … 蓋 此方 治少陰人 太陽病轉屬陽明 不大便五六日 日晡所發熱者 可用而 其他則不可用也 仲景 知此方 有可用 不可用之時候 故 亦能昭詳 少陰人 太陽陽明病證候也 … 待其不大便五六日 日晡發潮熱 狂言時 是 豈美法也哉 … 必待陽明病 日晡發潮熱 狂言時 用承氣湯 使人 半生半死耶

15) 6-38. 胃家實病 其始焉 汗不出 不惡寒 但惡熱而 其病垂危則 澹然 微汗出 潮熱也 澹然 微汗出 潮熱者 表寒 振發之力 永竭故也 胃竭之候也 脾約病 其始焉 汗自出 不惡寒而 其病垂危則 發熱汗多而 惡寒也 發熱汗多而 惡寒者 裡熱 撐支之熱 尸厥故也 脾絕之候也

陽이 盛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른바 안은 얼음 같고, 밖은 숯불 같다는 것이니 陽이 장차 없어지려는 증세이다.16)라고 하여 亡陽證 陰盛格陽의 상태에서 少陰人의 陽暖之氣가 사라지기 직전의 상태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陰盛格陽은 少陰人만이 있게 되는 특징적인 증상에 해당이 된다. 陰이 盛하여 내몰린 陽이 外遁함으로써, 煩熱·面赤·不惡寒 등의 병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煩熱·面赤과 같이 外在表現만을 보고, 熱證으로 파악해서는 안되며, 그 실상은 陰寒이 內盛하여 陽氣가 내몰려 출현하는 眞寒假熱의 病態인 것이다.

少陽人과 太陰人의 煩熱은 없다.

4) 惡熱

惡熱은 熱氣를 싫어하고 冷氣를 싫어하지 않는 自覺症狀으로 陽明病의 주요 증상이다. 陽明에 邪氣가 침입하면 裏熱이 더욱 심해지게 되므로 惡熱하게 된다. 또한 三陽合病 中에서 陽明病이 主證인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少陰人에 있어서는 '陽明病에 惡寒은 없고 오히려 惡熱하며 땀이 몹시 많이 흘러나오는 것은 亡陽證 中證인 것이고 ...17)' 또한 '胃家實病이 처음 시작 할 때에 땀이 나지 않고 惡寒도 없으며 단지 惡熱만 있다가 危重한 상태에 이르면 끈끈하게 땀이 약간 나고 潮熱이 있게 된다.18)'라고 하여 亡陽證의 中證과

胃家實의 중간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임을 알 수 있다.

5) 往來寒熱

少少陽病의 主症狀으로 邪氣가 少陽經에 있게 되면 半表半裏의 위치에 있게 되어 正氣와 邪氣의 분쟁이 있게 되는데 邪氣가 우세하면 惡寒하고, 正氣가 우세하면 發熱하게 되므로 往來寒熱이 있게 된다.

既存醫學에서는 往來寒熱의 증상이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少陽經病의 증상으로 보았으나, 李濟馬에 있어 往來寒熱은 少陽人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보았다. '少陽人의 腎局의 陰氣가 熱邪에 빠지는 바가 되고 脾局의 陰氣가 熱邪에 막히는 바가 되어 아래로 내려가서 腎局에 連接하지 못하게 되어 등골 사이에 엉기어 모여 아교와 같이 굳어지면 갈혀서 막히는 병이다. ... 寒熱往來하는 것은 脾局의 陰氣가 내려가려 하나 내려가지 못하다가 더러 내려가는 까닭에 寒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 19)'라고 하여 少陽人의 傷風證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少陽人의 傷風證 往來寒熱의 증상은 少陽人의 脾局陰氣와 腎局의 陰氣가 서로 升降되지 않는 관계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러한 升降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少陽人에 있어 邪氣는 熱化하는 특징을 갖게된다. 邪氣가 熱化하여 胸膈部位에 鬱熱이 되어 있는 상태에 對하여 少陽人의 保命之主인 陰清之氣가 邪氣를 물

16) 9-32. 亡陽者 陽不上升而反爲下降則亡陽也 亡陰者 陰不下降而反爲上升則亡陰也 陰盛格陽於上則陽爲陰抑 不能上升於胸膈 下陷大腸而外通膀胱 故背表 煩熱而汗出也 煩熱而汗出者 非陽盛也 此所謂內水外炭 陽將亡之兆也.

17) 6-35. ...陽明病 不惡寒 反惡熱 汗自出者 亡陽之中證也...

18) 6-38. 胃家實病 其始焉 汗不出 不惡寒 但惡熱而 其病垂危則 截然 微汗出 潮熱也 截然 微汗出 潮熱者 表寒振發之力 永竭故也 胃竭之候也 ...

19) 9-8. 張仲景所論少陽病 口苦咽乾胸脇滿或往來寒熱之證 卽少陽人腎局陰氣爲熱邪所陷 而脾局陰氣爲熱邪所壅 不能下降 連接於腎局而應聚腎間 膠固囚滯之病也 ... 寒熱往來者 脾局陰氣 欲降未降而或降 故寒熱或往或來也 ...

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發熱類型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往來寒熱의 發熱이 해소되지 않게 되면 胸膈部位에 熱이 있게되는 結胸證과 亡陰證으로의 발전을 하게되는 것이다. 이는 傷寒論에서 半表半裏의 위치에 있어서 陽氣의 強弱에 따라 惡寒과 發熱의 결정이 나타난다는 것과는 다른 병리과정으로, 少陽人の 脾局과 腎局의 陰清之氣의 強弱에 따라 惡寒과 發熱을 결정된다는 것이 다르다.

6) 體熱(壯熱)

熱이 심하게 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實證의 단계에서 있게 되는 高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癰病의 氣分에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이는 熱型이다.

體熱은 太陰人の 癰病에 나타나는 熱 증상으로 '위의 증세에 惡寒이 나고 몹시 熱이 나며 大便이 굳은 때는 皂角大黃湯 葛根承氣湯을 쓰고 ... 熱이 있고 배가 가득하며 泄瀉를 하는데, 熱이 盛하면 裏證이니 葛根解肌湯을 쓰고 ... 20)'이라 하여 太陰人の 肝受熱裏熱病 中 癰病으로 인해 熱이 盛할 때의 熱型을 나타낸다.

7) 燥熱

燥火라고도 하는 것으로 燥氣를 받게 되면 津液이 損傷됨으로 化熱 化火하게 되어 나타나는 熱型이다.

太陰人の 熱證中에서 表病證에 수반되는 熱證의

대표가 寒厥로 인한 熱證이라고 한다면, 燥熱은 太陰人の 肝受熱裏熱病에서 나타나는 裏熱證이다. '太陰人の 얼굴빛이 靑白한 者는 燥證이 없는 경우가 많고, 얼굴빛이 黃赤黑者는 燥證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모두 肝熱肺燥하기 때문이다²¹⁾'라고 하여, 燥熱이 잘 생길 수 있는 太陰人을 다시 구분하고, 燥熱의 原因은 '사치와 향락으로 慾火가 외치(外馳)하여 肝熱이 大盛하고 肺燥가 太枯한 까닭이다²²⁾'라고 하였다. 또한 燥熱病 환자의 예로는 '일찍이 太陰人 燥熱證에 癩瘡病을 치료한 적이 있다. 왼쪽 가운데 손가락부터 검게 타고 힘이 없더니, 2년이 채 못 되어 한 손가락에 있던 검은 피가 ...²³⁾', '이 病은 少陽人 消渴病이 아니라 太陰人 燥熱病이다. 腎氣丸을 사용하지 말고 熱多寒少湯에 藁本과 大黃을 加하여 쓴다²⁴⁾'라고 하여 燥熱證이 발생하는 平素 症狀과 太陰人の 癩瘡病 消渴病을 燥熱의 症狀으로 보았다. 그리고 치료는 '그 마음을 삼가 공경하며 불같은 욕심을 깨끗이 씻고 착한 마음으로 안정하기를 100일이면 그 병이 낫지 않을 이치가 없고 200일을 안정하여 치료하면 그 사람이 완전하게 되지 않을 이치가 없는 것이다.²⁵⁾'라고 하여 太陰人の 性情이 燥熱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이상의 太陰人 燥熱病은 李濟馬가 太陰人の 病證으로 제시한 독특한 病理觀에 해당이 된다. 즉 太陰人の 燥熱證이란 太陰人은 본래 肝大肺小하여 肝熱이 盛하고 肺가 枯하기 쉬운데, 그 중에서도 얼굴빛

20) 13-12. 論曰 右諸證 增寒壯熱 燥澁者 當用皂角大黃湯 葛根承氣湯 ... 體熱腹滿 自利者熱勝即裏證也 當用葛根解肌湯...

21) 13-18. 論曰 太陰人 面色靑白者 多無燥證 面色黃赤黑者 多有燥證 蓋肝熱肺燥而然也.

22) 13-25. 蓋 此病原委 侈樂無厭 慾火外馳 肝熱大盛 肺燥太枯之故也...

23) 13-19. 嘗治 太陰人 燥熱證 手指焦黑癩瘡病 自左手中指 焦黑無力 二年內 一指 黑血焦凝過掌心 而掌背浮腫 以刀斷指矣...

24) 13-23. 論曰 此病 非少陽人消渴也 卽太陰人 燥熱也 此證 不當用腎氣丸 當用熱 多寒少湯 加藁本 大黃.

25) 13-25. ...凡無論 某病人 恭敬其心 蕩滌慾火 安靜善心 一百日 卽其病無不愈 二 百日卽 其病無不完

이 누렇거나 빨갛거나 또는 검은 太陰人에게 발병되기 쉬운 證狀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을 素病이라고 하고 이러한 素病을 갖은 사람들 중에서 사치와 향락, 성욕을 삼갈 줄 모르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肝熱이 쉽게 盛하여져 太陰人의 弱한 臟腑인 肺에서 肺燥證狀이 쉽게 발생되는 것이다. 이러한 肝燥熱 증상으로 太陰人의 癍瘡病과 消渴證을 例로 들었다. 太陰人의 肝燥熱病은 裏熱病이므로 熱多寒少湯을 사용하며, 그 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서 '蕩滌慾火' '恭敬心身'하며 '調養慎攝'과 '戒侈樂禁嗜慾'하도록 하였다.

3. 熱의 多少에 따라

1) 寒多熱少(厥多熱少)

寒多熱少는 厥冷 時間이 發熱시간 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이는 陽이 衰하고 陰이 盛하면 邪氣를 제압할 수 없게되어 寒多熱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少陽人에 있어 寒多熱少의 증상은 治驗例에서 볼 수가 있다. 李濟馬도 말하였듯이 이는 表寒病으로 病이 들게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았다²⁶⁾.

太陰人에 있어서는 太陰人 寒厥證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傷寒 4-5일에 厥證이 있는데 厥이 심한 것은 熱도 심하고 厥이 미약한 것은 熱도 미약하다. 傷寒病에 厥4일에 發熱은 3일하고 다시 厥5일하는 것은 厥多熱少로써 病이 진행되는 것이다.'²⁷⁾라고 하였다. 또한 '이 病症에서 寒厥하는 病症이 여러 날 계속되는 것은 그 病이 重症이 되려는 증세이고, 寒

厥하는 증세가 몹시 맹렬한 것은 重症이 될 병세가 아니다.'²⁸⁾라고 하였고 이러한 원인으로는 '勞心焦思하여 胃脘이 虛薄해져서 寒邪를 이기지 못하고 外表에 침범을 받아 서로 싸우는 형세인데, 客이 강하고 主가 약한 것이다'²⁹⁾라고 하였다. 즉 太陰人의 寒厥證은 厥과 熱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厥은 寒氣가 勝한 상태이며, 熱은 陽氣가 회복이 되어 가는 상태의 표현이 된다. 따라서 厥이 그치고 땀이 나면 이것은 陽氣가 회복되고 陰邪가 물러가는 상태가 되며, 熱이 그치고 厥이 생기면, 이는 陽氣가 不振하여 陰邪가 다시 勝하는 상태인 것이다. 이와 같이 正氣와 邪氣가 장기간 투쟁을 벌이며, 결론이 나지 않을 때 厥과 熱이 지속되는 시간 관계를 통하여, 厥한 시간이 熱한 시간 보다 길게 반복이 되면 病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病이 물러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太陰人의 寒多熱少之病은 寒厥의 기간이 길고 發熱기간이 짧은 상태에 해당이 되므로, 太陰人 寒厥證의 重證에 해당되는 것이다.

2) 熱多寒少(熱多厥少)

熱多寒少는 發熱이 약간 심하고 惡寒이 약간 가벼운 증상을 말한다. 太陽病이 오래되어 邪熱이 鬱滯되면 正氣가 邪氣를 몰아내기 때문에 發熱惡寒하고 熱多寒少하게 되는 것이다.

少陽人의 熱多寒少之病은 陽厥을 들 수가 있다. 陽厥은 朱肱³⁰⁾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陽厥이란 발병 후 身熱·頭痛 등의 陽證이 있다가 4-5일이 지나

26) 9-41. 少陽人一人 得傷寒寒多熱少之病 然… 想必此病人 先自表寒病 得病後 有大便秘閉而發此證矣.

27) 12-3. 傷寒四五日而 厥者 必發熱 厥深者 熱亦深 厥微者 熱亦微 傷寒厥四日 熱反三日 復厥五日 厥多熱少 其病爲進 傷寒發熱四日 厥反三日 厥少熱多 其病當自愈

28) 12-7. … 此證寒厥之勢 多日者 病重之勢也 寒厥之勢猛峻者 非病重之勢也.

29) 12-5. … 此原委 勞心焦思之餘 胃脘衰弱 而表局虛薄不勝寒 而外被寒邪所圍 正邪相爭之形勢 客勝主弱…

서 厥症이 있게 되고, 厥症이 생긴지 만나질만에 또 몸에서 熱이 나는데 이는 裏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熱氣가 심하여 일어나는 厥症이 바로 陽厥이며, 그 본질은 裏熱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陽厥은 少陽人の 胃熱이 더욱 심하여져 생기는 병증에 해당이 되므로 少陽人の 胃受熱裏熱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李濟馬는 少陽人 熱多寒少의 治驗例에서, 發狂譫語와 더불어 나타나는 風의 전조증으로 보았다³¹⁾. 그러므로 少陽人の 寒多熱少에 비하여 熱多寒少는 더 重한 증상으로 보았다.

太陰人에 있어서는 '傷寒病에 發熱 4일하고 厥 3 일하는 것은 厥少熱多로서 그 병은 스스로 낫는다³²⁾'라고 하여 發熱이 많으면 汗出이 있게되므로 病證이 好轉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太陰人の 陽氣가 陰邪를 물리치는 상태에 해당이 되므로 太陰人の 寒多熱少에 비하여 輕證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IV. 결 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각 체질별 熱症에 관한 내용을 集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少陰人에 있어서 熱이란 邪氣와 正氣의 개념이 함께 사용된다. 少陰人에 있어 熱氣란 正氣인 陽暖之氣의 強弱을 나타낸다. 李濟馬가 표현한 發熱類型에 따른 구분을 보면, 少陰人の 身熱은 鬱狂證과 亡陽證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았으며, 胃家實과 脾約證처럼 少陰人の 便秘症狀이 지속되게 되면 潮熱의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亡陽證의 陰盛格陽證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眞寒假熱의 상태인 煩熱症이 나타나게 된다.

2. 少陽人에 있어 熱이란 주로 발병원인으로 사용되었으며, 保命之主의 표현은 淸陰과 裏陰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少陰人の 熱氣가 正氣의 強弱을 나타낸다면 少陽人の 熱氣란 邪氣의 強弱 정도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少陽人の 發熱類型에 따른 구분을 보면, 少陰人の 身熱이 便秘症狀과 함께 나타나는 發熱類型으로 보았듯이 少陽人에 있어서도 亡陰證과 陽厥證의 症狀中 便秘가 있게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發熱類型으로 보았다. 또한 潮熱의 상태가 소음인의 특징적인 發熱類型이라면 少陽人の 특징적인 發熱類型은 往來寒熱이 있다. 往來寒熱은 少陽人の 保命之主인 淸陰과 淸陽의 強弱에 따라서 惡寒과 發熱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3. 太陰人에 있어서 熱이란 病因으로서 직접적인 熱邪의 표현은 없이 瘟病과 陽毒으로 표현되었다. 太陰人の 주요 發熱類型은 體熱·壯熱·燥熱의 표현이 있는데 그 中 體熱과 壯熱은 太陰人の 肝受熱裏熱病 中에서 瘟病이 들게 되어 발생하는 高熱을 體熱과 壯熱로 표현하였다. 또한 太陰人の 燥熱은 太陰人의 사치와 향락 등으로 발생하는 性情에 의한 熱證을 燥熱로 나타내었다.
4. 太陽人은 發熱이 있는 경우 오히려 건강한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 發熱상태를 볼 수는 없었다.
5. 少陰人에 있어 太陽病 發熱惡寒의 상태와 少陽人 傷風證의 往來寒熱의 상태, 그리고 太陰人

30) 10-7. 朱肱曰 陽厥者初得病必身熱頭痛 外有陽證至四五日方發厥 厥至半日 却身熱 蓋熱氣深方能發厥

31) 9-42. 少陽人一人 得傷寒 熱多寒少之病 有人教服雉肉湯 仍成陽毒發斑 余教服 白虎湯連三貼而其人只服半貼 數日後 譫語而病重病家朔急顛倒往觀則 病人 外證昏愼 已有動風之漸而耳聾譫語 舌上白苔 ….

寒厥證의 熱多寒少의 상태는 각 체질별 保命之主가 邪氣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熱型에 해당이 된다.

6. 少陰人에 있어서 外部邪氣에 對하여 陽暖之氣의 상승이 순조롭지 못하면 熱證이 발생하며, 少陽人에 있어서 外部邪氣에 對하여 陰清之氣가 下降하지 못하면 熱證이 있게 되고, 太陰人에 있어서는 胃脘이 虛薄하여 陽濫한 기운이 부족하면 表寒證의 發熱이 오게되고, 肝熱肺燥한 상태가 있게 되면 裏熱證이 나타나게 된다.

참 고 문 헌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여강출판사, 1992
2.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杏林出版社, 1989.
3.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四象醫學, 集文堂, 1987.
4. 朴性植, 宋一炳: 四象醫學의 醫學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對한연구, 四象醫學會誌 Vol.5 No.1, 1993
5. 崔義權, 金敬堯: 四象醫學에서의 陰陽表裏寒熱虛實 病理의 變用, 사상의학회지, 9(1), 1997.
6. 崔容準, 金敬堯: 少陰人과 少陽人 表證의 陰陽升降과 水升火絳의 관계에 관한 문헌적 고찰, 사상의학회지, 7(1), 1995
7. 蔡仁植: 傷寒論譯註, 高文社, 1980.
8. 朴吳南: 傷寒發熱에 關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1992.
9. 金賢濟, 洪元植: 韓醫學 辭典, 成輔社, 1983.